



2019. 10.

- 2019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기간 : '19. 9. 17(화) ~ 9. 26(목), 8박 10일
-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충 청 남 도 의 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목 차 】

I. 연수 개요

① 목 적	2
② 출장개요	2
③ 업무수행분담	3
④ 세부일정	4

II. 주요 연수내용

① 방문국 일반현황	5
② 주요 연수내용	
가.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7
나. 와라감바 댐	10
다. 국제남극센터	13
라. 존스 과수농장	16
마. 뉴질랜드 농민연합	19
바. 제스프리	23
사. 노인복지시설	26

III. 연수 견학활동 내용 29

IV. 정책제언 32

V. 총 평 35

VI. 연수 후기 38

I 연수 개요

1 목 적

- 선진 외국의 농업·경제·환경 관련 시설 및 문화유산 등 비교 시찰을 통해 우리 道의 행정에 접목시키고,
- 각 나라의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특징을 비교 체험하여 글로벌화하는 지방행정에 대처하며 경쟁력 제고

2 출장개요

- 기 간 : 2019. 9. 17(화) ~ 9. 26(목), 8박 10일
- 대상지역 : 호주, 뉴질랜드
- 대상인원 : 12명(의원 8, 전문위원실 3, 집행부 1)

- 의 원(8) :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부위원장,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의원
- 전문위원실(3) : 한기수, 남홍우, 권현석
- 집행부(1) : 빈준수(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 주요내용

- 고용창출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방안 사례 파악
- 상수원 사용현황 및 수질오염 방지 사례
- 선진 과수재배 기술 및 농산물 유통시스템 파악
- 농업인 단체 운영 현황 및 농업인 권익보호 사례
- 농업관련 협동조합 운영 성공사례 파악

3] 업무수행 분담

구 분		이름	주요 임무
의원 (8명)	1조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김명숙 방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서비스 우수사례 조사 ▶ 청년 및 노인 등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조사 ▶ 사회적기업과 상호 연대사례 조사 ▶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관련 정책제안사항 발굴 ▶ 기후변화 대응 향후 과제 발굴 ▶ 자연재해(홍수) 예방대책 및 우수사례 조사
	2조	김복만 (부위원장) 김기서 김영권 양금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사용현황 및 관리 우수사례 조사 ▶ 수질오염 방지사례 조사 ▶ 선진 환경정책 및 자연환경보전 우수사례 조사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 ▶ 농산물유통시스템 및 6차산업 활성화 사례 조사 ▶ 농업인 단체 운영 및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례 조사
전 문 위원실	전 문 위 원	한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 수립(총괄) ▶ 의원지원 총괄, 연수단장 보좌
	직 원	남홍우 권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기관 의전행사 지원 ▶ 우수 정책사례 요약 및 정리 ▶ 연수단 예산 및 회계 관리 ▶ 연수단 사진촬영 및 편집 등
집행부	직 원	빈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운영 사례 및 물통합 관련 실태 조사와 자료수집 지원 ▶ 우수사례에 대한 정책 도입가능성 검토 등

4] 세부일정

도시	기관명	방문 일시	주요 임무	비 고
호주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9.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구직활동 서비스 우수사례 조사 ▶ 청년 및 노인 등 일자리 창출 실태 조사 ▶ 사회적 기업과의 상호 연대 사례 조사 ▶ 취업 과정 등 트레이닝 쉽 사례 조사 	일자리노동 청년과 경제정책과
	와라감바댐 관리사무소	9.1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사용현황 및 관리 우수사례 조사 ▶ 물통합 관리 사례 조사 ▶ 수질오염 방지사례 조사 ▶ 자연재해(홍수) 예방 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시 관리 방안 	물관리정책과 자연재난과
뉴질랜드 크라이스 트처치	국제 남극센터	9.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하 해빙 현황 조사 ▶ 남극 연구기지의 역할과 주요 연구 사례 	기후환경 정책과
뉴질랜드 퀸즈타운	MRS JONE'S ORCHARD	9.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과수재배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사례 조사 ▶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6차산업화 활성화 사례 조사 ▶ 과일 가공기술 등 선진기술 우리도 도입 방안 모색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뉴질랜드 해밀튼	FEDERATED FARMERS OF NZ	9.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단체 운영 방안 및 역할 조사 ▶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례 조사 ▶ 농업인 단체 활용현황 및 농업인 권익보호 사례 조사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뉴질랜드 타우랑가	제스프리	9.2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운영 현황 및 성공사례 조사 ▶ 지역주민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례 조사 ▶ 농산물 유통시스템 및 마케팅 사례 조사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 청년과 농식품유통과
뉴질랜드 로토루아	DAY BREAKCARE	9.2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시설 운영 현황 및 입소기준 조사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도 도입 방안 모색 	노인복지과

II 주요 연수내용

1 방문국 일반현황

가. 호주

국명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동경 113° 9' - 153° 39', 남위 10° 41' - 43° 39' 남반구 태평양에 위치 (대한민국보다 1시간 빠름)
면적	7,692,024km ² (6위)/ 한반도의 약 35배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반대의 계절을 보임 -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임
건국일 (독립일)	1901년 1월 26일(수도 : 캔버라)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인구	25,088,636명 (2019년 기준, 55위)
1인당 GDP	5만 3,799(\$)(2017년 기준, 9위)
주요도시	시드니(462만명), 멜버른(413만명), 브리즈베인(207만명) 퍼스(173만명), 아델레이드(121만명)
민족 (인종)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기타 기독교(16.3%), 이슬람교(2.6%), 불교(2.4%) 등
실업률	5.29% (2018년 기준)
교역량	수출 257,182백만불, 수입 235,373백만불(2018년 기준)

나. 뉴질랜드

국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치	남위 33° - 53°, 동경 162° - 173° 남반구 태평양에 위치 (한국보다 3시간 빠름)
면적	270,534km ² (73위)/ 한반도의 1.3배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반대의 계절을 보임 - 온난해양성 기후 (1월 평균 16.5℃, 7월 평균 8℃)
건국일 (독립일)	1840년 2월 6일(수도 : 웰링턴)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단원제)
인구	4,792,409명 (2019년 기준, 126위)
1인당 GDP	4만 2,940(\$)(2017년 기준, 18위)
주요도시	오클랜드(141만), 웰링턴(39만),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20만), 네이피어(12만), 타우랑가(12만)
민족 (인종)	유럽인(75%), 마오리(15%), 아시아인(12%), 기타(8%)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교	기독교(70%), 기타(30%)
실업률	4.5% (2018년 기준)
교역량	수출 39,613백만불, 수입 43,875백만불(2018년 기준)

② 주요 연수내용

가.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산하)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18(수), 10:00
- 장 소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 내 용 :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황 및 허브 운영상황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시드니 시내에 11층, 연면적 17,000㎡로 호주에 최초로 설치되었고, 남반구에서는 해당분야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음.
- 약 2,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각 층별로 분야별 기업이 입주하게 하여 서로간의 소통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본 건물에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려면 상당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정부에서 최대 5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우리가 있는 2층은 카페형태에 무료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입주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③ 질의응답

○ 스타트업 허브의 역할은 무엇인지?

⇒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운영의 불안정성 경감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혁신과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기관임

○ 주로 입주하는 기업의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한 분야 제한은 없지만 층별로 일정 영역을 묶어서 입주를 하고 있음. 4~5층은 금융, IT 관련 7~8층은 좀 더 젊고 도전적인 청년CEO의 입주 지원 공간으로 활용.

○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 스타트업 허브의 운영 비용 조성에 투자한 투자자들(정부, 민간투자기업 등)과의 미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체크 받게 됨.

○ 입주한 기업 중에 손꼽힐 만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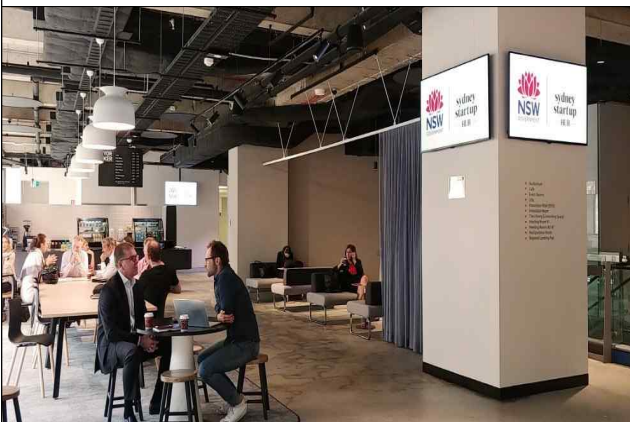
⇒ 대표되는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핀테크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창업한 Stone & Chalk' s 입주기업은 입주 후 18개월만에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기금을 마련하였고, 5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④ 시사점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2018년 2월 문을 열고 호주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장소로 허브 위치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서울 종로나 강남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 스타트업 허브의 구성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공간과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혁신적으로 창업자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음.
 - 스타트업 환경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차원에서 실행하면서 정부의 보조 지원 역할 적정선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층별 허브 설명>



<2층 소통 공간>



<단체사진>

나. 와라감바 댐(Waragamba Dam)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19(목), 09:00
- 장 소 : 시드니 외곽 와라감바 댐
- 내 용 : 와라감바 댐 운영현황

② 브리핑 주요내용

- 호주 지역은 대부분이 건조지대로 대부분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시드니 지역은 버라고랑호와 네피안강 등 우수 상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원이 안정적임.
- 와라감바 댐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했으며, 시드니 지역에 사용하는 물의 80%가량을 공급하고 있음.
- 댐은 높이 142m, 길이 351m이며, 버라고랑 호수는 최대 20억 톤의 저수용량에 호수의 길이는 52km, 호수 최대 깊이는 105m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840mm임.
- 집중호우로 댐에 저장용량이 100% 도달하려 할 때 중앙 수문과 옆의 방사형 수문 총 5개를 통해 물을 흘려보냄.
※ 2002년에 극심한 홍수 대비 보조 배수로 추가 설치
- 시드니는 연평균 상온을 유지하고 있어 도수관로를 외부로 유출시켜 설치하였고, 이는 도수관로의 노후화 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질의응답

○ 와라감바댐이 상수원으로서 수질은 충분한지와 상수원 부족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와라감바댐의 수질은 최상급을 유지하며 시드니에 수질관련 해서 큰 문제는 없었음. 와라감바댐 수원이 부족한 상황 까지 간 경우는 없었지만 시드니에는 대규모 해수의 담수화 장비를 갖추고 있어 가뭄에 대비해 운용하고 있음.

○ 조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 약간의 조류 발생은 있을 수 있지만 상수원으로 이용 불가능 할 정도로 조류가 발생하지는 않고, 약간의 조류에도 버블 장치를 사용하여 조류를 제거하고 있음.

○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어느정도 되는지?

⇒ 5만KWH(킬로와시시)의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수질관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 침천, 여과 등 한국의 수질관리 프로그램과는 특별한 차이는 없겠지만,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생활화 되어 오염의 근원적 발생을 줄이고 있음.

④ 시사점

○ 호주도 대부분 사막지역을 보이며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나 시드니 지역은 다양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와라감바댐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방문했을 당시 지난 겨울동안 눈이 많이 오지 않아 겨울가뭄을 겪었지만, 시드니의 460만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저수용량이 확보되어 있었음.
- 호주의 물사용 비중은 농업용수 54%, 생활용수 13%로 농업강국답게 농업용수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호주 자체가 워낙 건조한 대륙이라 물부족을 대비한 해수담수화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여 와라감바 댐 수원 부족시 시드니에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음.
 - 충남 서북부 지역에 반복되는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수담수화 장비는 충남도에서 시급히 설치하여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과거 댐 시설물 설명>



<댐 현황 설명>



<홍보관 안내>



<단체사진>

다. 크라이스처치 국제남극센터(Antarctic Centre)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20(금), 15:30
- 장 소 : 크라이스처치시 남극센터
- 내 용 : 남극의 현재상황과 해빙으로 인한 위험 상황

② 브리핑 주요내용

- 남극은 1,300만km²의 크기에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평균 1.9km의 빙하로 지구 민물의 90%가 남극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륙임.
- 남극은 1959년에 미국 주도로 소련, 뉴질랜드 등의 12개 국가가 남극조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가질 수 없는 중립지대로 선포하게 되었음.
 - 한국은 1986년 11월 28일에 33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80개 국가가 남극조약에 가입한 상태임
- 남극에는 58개국에서 설치한 92개의 기지가 있으며(소규모 시설 포함), 미국은 총 5개의 기지가 있고, 한국은 1988년에 설치한 세종기지과 2014년에 설치한 장보고기지 2개소가 있음.
- (미군 남극기지 현재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며) 현재 이곳은 남극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고, 영하62℃를 보이고 있으며, 이 온도에 외부에서 숨을 쉬면 폐가 얼어버리게 됨.
 - 이런 내륙 기지는 1번 들어가면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며, 가장 추웠던 적은 영하 87.2℃를 기록한 적이 있음.

③ 질의응답

- 남극대륙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가?
 - ⇒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대륙의 빙하는 매년 가파르게 녹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만약 남극대륙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호주는 고지대가 많아 그나마 절반 절반정도만 침수할 것이고, 저지대 국가는 대부분의 영토가 사라질 것임.
-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이 잦아지면서 해양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 유빙이 아무 관리 없이 해양에 떠다니면 선박과의 충돌 사고 등으로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떨어져 나온 유빙은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여 GPS로 추적하고 있음.
 - ※ 최근 하와이섬 정도의 유빙이 떨어져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음.
- 남극에 설치된 연구소에는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가?
 - ⇒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는 남극의 얼음을 등근 기둥형태로 시추하여 각 단층별로 그 당시의 기후를 역으로 연구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를 유추하는 연구가 많음. 참고로 남극기지에서 나온 연구결과물은 남극조약에 따라 가입국가간에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음.
 - ※ 1m의 빙하가 생기기 위해서는 26m의 눈이 압축되어야 하고, 남극은 평균 6km의 빙하 두께를 보이고 있음.
- 국제남극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 ⇒ 남극센터는 어느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들이 운영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남극센터가 크라이스트처치시 공항 옆에 위치하여, 공항으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기도 함.
 - ※ 남극기지로 보내는 물류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을 통해 들어오며 공항에서도 물류기지로서의 이득을 보고 있음.

④ 시사점

- 남극이라는 새로운 대륙에 대한 국가영토의 확장 공간 개념이 아닌 공동으로 협력하여 연구해야 할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얼음이 계속해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얼음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다시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 국제사회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지구환경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임.



<남극센터 현황 설명>



<남극기지 사용 장비>



<남극조약 체결국가>



<단체사진>

라. 존스 과수농장(Mrs. Jones' s Orchard)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21(토), 10:30
- 장 소 : 존스 과수농장 (뉴질랜드 크롬웰 지역)
- 내 용 : 농장 운영상황 및 뉴질랜드 과수유통 시찰

② 브리핑 주요내용

- 현재 가장 집중해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체리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최초로 체리를 수출했던 농가임.
- 재배하고 있는 체리의 종류는 총25종이며, 올해에도 6천그루 체리나무를 심었고, 비료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도 독일산 비료를 사용하여 품질 좋은 체리가 생산되고 있음.
- 현재 체리 꽃망울이 폼이 있어야 했는데 이상기후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서리가 내리며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상저온으로 약 500톤의 체리를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 수확기인 1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는 400~500명의 노동자를 채용하여 체리를 단기간에 수확해야 함.
- 현재에도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한국 청년이 농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30대 한국청년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음.

③ 질의응답

○ 체리 신제품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용 투자보다는 상품판매의 마케팅 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이상저온 등으로 농가 피해가 클시 정부 지원이나 재해보험료 등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정부의 보상은 전혀 없고, 큰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보험상품도 존재하지 않음.

⇒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농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안정적 자본 저축 및 피해 저감 경험 축적)

○ 생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은 어떻게 받는지?

⇒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증한 검증관이 와서 품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음.

○ 생산물에 대한 가공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며 가공품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 생과일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가공품은 따로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생과일을 가져간 유통업자가 품질을 따져 가공품(주스 등)으로 변환하여 판매하기도 함.

○ 농장에서 일하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는지?

⇒ 최초 농장일을 배우는데는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가족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도 모두 가족같이 대하며, 성수기에 일하고 떠났다가 다시 일하러 많이 찾아오고 있음.

- 과일가격 하락시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별도 정책은 있는지?
 ⇨ 뉴질랜드 농산물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체계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됨.

④ 시사점

- 뉴질랜드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작물의 생장이 우수한 편으로, 우리가 방문한 크롬웰 지역은 생과 수출을 위한 체리와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가 주요 특산품이었음.
- 처음 존슨씨 부부가 노년을 대비해 1만평 정도로 시작한 체리 재배가 작물의 품질이 우수하여 판매가 호조를 이어왔고, 현재는 아들과 딸도 도시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온 가족이 체리재배에 매진하는 성공적 가족경영을 보이고 있음.
-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에도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농가경영의 체질을 단련하도록 노력해 왔음.



<농장 현황 설명>



<확장중인 농장 부지>



<체리 나무 앞에서>



<존슨 할머니>



<운영중인 소매 상점>



<단체사진>

마. 뉴질랜드 농민연합 (FEDERATED FARMERS OF NZ)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23(월), 15:00
- 장 소 : 뉴질랜드 농민연합 해밀튼 지부
- 내 용 : 농민연합 운영현황 및 농민권익보호 활동 사항

② 브리핑 주요내용

- 농민연합은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 농업관련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음.
- 전국의 28,000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국에 24개의 독립된 농민조합의 연합체이고, 방문한 이곳은 와이카토 지역 농민조합으로 24개의 농민조합 중 가장 큰 조합임.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보조금 없이 가입된 조합원들로부터의 기금을 받아서 운영 중임.
- 뉴질랜드에서도 1985년까지는 농업관련 보조금이 있었지만 폐지되고, 현재는 엄격한 정부 조사를 거쳐서 일부사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뉴질랜드 농민은 타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는 농민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같은 조합에서 농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활발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UN에서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8억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업관련 선진국은 식량생산에 더욱 집중하여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③ 질의응답

○ 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 와이카토 조합에는 3명의 법률자문 변호사가 상주하여 농가에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최초 15분간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저렴한 비용의 유료상담 실시

⇒ 유통계약 지원 등 다른 지원도 있지만 법률상담 지원에서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최근 뉴질랜드 농민조합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있는지?

⇒ 뉴질랜드 농민들은 훌륭한 농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 정부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낮아져 농민들의 불만을 대변해서 건의를 하고 있음.

○ 정부보조 없이 농민조합 자체자금으로 조합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 조합이 최초 50여년전에 결성될 시에 당시 와이카토 지역 농민들의 자금을 모아 현재의 6층 건물을 건설하게 되었고, 여기서 걷어 들이는 임대료와 매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등으로 조합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축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최근에 구제역 같은 동물질병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뉴질랜드의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를 다들 경험하였을 텐데, 뉴질랜드는 외국에서의 농축산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농촌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는데, 뉴질랜드 농촌은 상황이 어떤지?

⇒ 뉴질랜드에서 농업인은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대부분이라 농가소득은 높은 편이나 힘든 농사일보다는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청년이 많은 것은 같은 현실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뉴질랜드는 농업이 국가 핵심분야이고, 안정적 수출이 이뤄지다 보니 농촌소멸의 위험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음.



<농민조합 현황 설명>



<농민조합 소유 건물>



<단체사진>



바. 제스프리 (Zespri)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24(화), 10:00
- 장 소 : 제스프리 본사 (타우랑가 지역)
- 내 용 : 협동조합 운영 상황 및 세계적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유

② 브리핑 주요내용

- 제스프리는 전세계에 2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의 50개국 이상으로 키위를 수출하고 있음.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크며, 일본, 스페인, 독일, 한국 순으로 수출 물량을 보이고 있음.
- 세계적으로 키위의 소비량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뉴질랜드에서 재배한 키위의 소비 수요는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과거에는 그린키위의 소비량이 많았으나 2013년 이후로는 골드키위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골드키위에 대한 로얄티 권한은 제스프리가 가지고 있어서 제스프리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기준으로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에서 그린키위는 26%, 골드키위는 24%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사과, 배, 모과 등을 합쳐야 20% 정도 됨.

- 제스프리 조합에 소속된 키위재배자는 2,391개의 농가가 있고, 총 재배면적은 14,000ha이고, 그린키위가 7,700ha, 골드키위가 6,300ha임.
 - 이중 60세 이상의 재배자가 53%비중을 보이며 고령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 농가당 평균 3.3ha의 재배 면적을 갖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는 뉴질랜드 북섬의 타우랑가 지역이 전체 재배면적의 83%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뉴질랜드 전역에 골고루 키위가 재배되기를 바라고 있음.

③ 질의응답

- 제스프리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 ⇒ 조합의 결성당시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만 Zest(열정) + spirit(영혼)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것이라 설명 드리겠음.
- 제스프리가 성공하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분야는?
 - ⇒ 키위가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품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여 양질의 키위가 생산되도록 하고, 조합원과의 소통과 제스프리가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키위의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배량을 늘릴 계획은 있는지?
 - ⇒ 키위 소비의 증가량에 맞추어 적정재배면적은 어느 정도로

해야 가격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음.

거기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4개국을 시작으로 제스프리 상표를 단 키위가 외국에서 재배되어 외국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과 해남지역에서 193ha, 193농가에서 제스프리 키위를 재배하고 있고, 2023년까지 320ha까지 재배면적을 확장해나갈 계획임.

○ 그렇다면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키위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키위와의 품질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 제스프리에서 그동안 축적된 생산노하우와 시스템을 뉴질랜드와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서 재배하면 큰 품질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대표 농산물인 키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 있는지?

⇒ 정부보조금은 일절 없고, 농민들 스스로 또는 농업관련 단체에서의 정보교류나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 키위 유통에서 뉴질랜드의 경쟁국가는?

⇒ 뉴질랜드 다음으로는 칠레가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하나의 과일품종만으로 이렇게 까지 성장한 조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됨.



<제스프리 현황 설명>



<제스프리 건물>

<단체사진>

사. 노인복지시설 (Day Breakcare)

①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25(수), 10:00
- 장 소 : 로토루아 지역 노인복지시설
- 내 용 : 시설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② 브리핑 주요내용

- 1일 평균 35~40분의 어르신이 방문하여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 계시는 주간보호센터임.
- 10시 정도에 모든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면 운동, 영화, 독서 등 시설에서 마련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③ 질의응답

- 한국에서와 같은 요양등급이 나누어진 기준에 따른 입소 기준이 있는지?
 - ⇒ 별도의 국가에서 정한 입소기준은 없지만 요양시설과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양시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등을 통해 입소가 이루어짐.
- 시설에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 1인에 몇 분의 어르신을 돌보는지?
 - ⇒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직원 1인당 대략 3분정도의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있음.
- 시설기준으로 반경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어르신들이 방문하는지?
 - ⇒ 15km 이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고, 이 반경 내 어르신을 모두 돌봐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 같은 규모 이외에 5~6분의 자원봉사형태의 소규모 돌봄 서비스가 뉴질랜드는 잘 발달되어 있음.



<시설 현황 설명>



<시설 내부 견학>



<시설 내부 견학>



<단체사진>

Ⅲ 연수 견학활동 내용

①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호주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며,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자생하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펼쳐져 있음. 방문일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블루마운틴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당초 블루마운틴에 조성되어 있던 탄광에서의 석탄운반용 레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음.



② 플래밍턴 마켓

-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형태로 1810년 41ha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시드니에 농산물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는 매년 약250만톤의 과일과 채소가 유통되고 있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음.



③ 피요르드 국립공원 (밀포드 사운드)

- 피요르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남서부에 12,500km² 규모의 뉴질랜드 최대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1986년에 등록되었고, 날카로운 계곡은 빙하침식으로 만들어진 것임.
- 밀포드 사운드는 약 16km의 협만으로 연강수량이 600cm 이상으로 비가 연중 자주 오는 지역이며, 평균수심은 330m임. 주변 암벽높이는 대부분 1,000m가 넘는 고지대로 정상에 만년설이 조성되어 절경을 보이고 있음.



④ 해밀턴 가든

- 최초 1960년 해밀턴 시에서 조성하였고, 1971년 장미박람회를 계기로 가든이 홍보가 많이 되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 총 58ha규모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5개국 테마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가든 조성공사가 진행중임.



⑤ 레드우드 수목원

- 50만평 규모의 수목원으로 40여년전 세계 2차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병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이 시작되었고, 나무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산 품종을 들여 식재하였음.
- 수목원에는 메타스퀘어, 나무고사리가 많으며, 특히 메타스퀘어는 캘리포니아에서보다 2배정도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며 울창한 수목원을 이루었음.



⑥ 퀸즈타운 가든 및 와카티푸 호수

- 퀸즈타운 가든은 와카티푸 호수 옆에 반도 형태도 튀어나온 지형에 위치한 15ha규모의 공원으로, 가든 주변에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퀸즈타운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음. 와카티푸 호수와 가든이 이루는 절경으로 퀸즈타운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휴양·레저도시임.



①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점검

- 시드시 스타트업 허브는 정부에서 하드웨어적 지원에 집중하고, 창업자간의 소통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적 운영은 스스로 공간을 위해 실적을 창출해 나가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 설립예정인 일자리진흥원과 연계하여 창업인큐베이터 센터 등 기존 창업관련 조직에 최소한의 관리만 진행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가가 발굴되는 환경을 만들 것과 민간주도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 되도록 제안함.

② 해수담수화 추진

- 시드니의 경우 와라감바 댐의 수원이외에 추가로 대규모 해수담수화 장비를 갖추어 건조기후로 인한 지독한 가뭄에 대비를 하고 있음.
- 충남 서북부 지역은 매년 물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심각했던 경우 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 서북부지역의 물부족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해수담수화를 추진하는 등 해수담수화에 대한 연구 및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함.

③ 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와 환경보호 인식 제고

- 뉴질랜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국가로, 좋은 농산물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야 말로, 뉴질랜드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후손을 위한 첫 번째 수행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금년도에 특히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잦았던 만큼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도록 점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환경 보호 인식과 실천은 환경 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유·소년기에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를 제안함.

④ 농업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 뉴질랜드 농민연합에서는 정부의 농·축산물 정책에 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과 법적 분쟁 시에 대해 일부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농민과 정부와의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간의 입장을 설명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도 여러 농업관련 중간지원조직도 농민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함.
- 특히,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가 농업관련 주요 정책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⑤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과수 품목 재배 확대

- 제스프리 방문에서 키위의 아시아권 국가 재배를 국내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현재는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역에서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지역으로 재배 가능 여부 검토를 제안함.
- 또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아열대작물의 재배가 국내에서 확장되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규 작물 재배 품목 검토와 연구를 제안함.

1 연수 총평

- 지난 2019. 9. 17.~26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 2일, 뉴질랜드 6일간 연수를 진행하며 농업·경제·환경 분야의 시스템을 체험하고 비교시찰 함으로써, 지식과 견문을 넓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호주는 청년 창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시드시가 소속되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주관하여 설립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호주의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며, 설립 1년 만에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음.
 - 호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허브의 설립으로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물부족을 보이고 있는데, 와라 감바댐 방문 시 언급되었던 시드니에 닥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해수담수화 장비도 충남도에도 시급히 설치하여 장기적인 물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는 2018년 기준으로 식용 양과 소를 키우는 24,500농가, 젖소를 키우는 12,780농가, 포도, 체리, 야채 등의 농산물을 키우는 7,500농가, 산림 및 화훼류를 키우는 6,700농가, 곡물류를 키우는 3,300농가 순으로 농업보다는 축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분야이고, 1차산업에 전 국토의 절반정도가 사용중임.

- 축산분야에서 사육하는 가축수를 보면 양은 27,400,000마리, 소가 3,600,000마리, 젖소가 6,500,000마리로 현재 양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뉴질랜드의 유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젖소 사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가축은 우리나라처럼 축사시설이 아닌 초원지대에서 방목형으로 키우고 있으며 10~12군데의 구역을 나누어 양과 소는 같은 우리에 섞여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고, 한구역의 풀을 거의 뜯어먹으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며 사육하는 형태로 사육을 위한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음.
- 방목형으로 사육하며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어미와 새끼가 함께 초원에서 드문드문 나뉘어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한국의 비좁은 축사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는 가축과 비교되는 부분이었음.
- 뉴질랜드는 외국에서의 농업 및 축산분야 식품의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며, 전염병으로 인한 자국의 축산물을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한 축사에 있는 가축을 집단 폐사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방목형 축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뉴질랜드 크롬웰 지역의 존스 과수농장과 해밀튼의 농민 연합을 방문하여, 정부 보조가 현재는 사라져 뉴질랜드 농민들은 농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세계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체리농가 대표 존슨 할머니와, 농민연합 존 부대표의 뉴질랜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 보였음.

- 당초 공식방문 기관 섭외 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청과 오클랜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뉴질랜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고자 호주 대사관을 통해 섭외해보려 노력하였으나, 10월 뉴질랜드 지방선거로 인해 연수 출발 일주일전 방문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 또한,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을 살펴보려는 욕심에 도시간의 이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방문기관에서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

뉴질랜드와 호주 연수를 다녀오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득 응

제11대 충청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위원회 위원들과 처음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를 출발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었다.

선진 농업과 경제, 환경을 두루 배우고 충청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컸지만, 농·축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인천에서 밤에 출발하여 다음날 시드니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 바로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데 평소 비행기 타는 거에 익숙치 않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시드니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좌절감을 생각하니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창업지원을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했을 때 곳곳에 보여지는 청년들은 활기가 넘쳐 보였고, 여러 미팅룸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 저들은 정말 소통이 되며 서로간의 창업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센터는 설립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센터에 들어온 후 시드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다음날은 호주 시드니의 물공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와라감바 댐을 방문하여 시드니에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한 와라감바의 댐 운영상황과 녹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버블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쉽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뭄에 대비하여 운영중에 있다는 해수담수화 장비 시설은 매년 반복되는 충남 서북부 가뭄을 생각하면 충남도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질랜드로 이동해서는 크라이스트처치시청에 뉴질랜드 지방선로 방문을 할 수 없었지만 남극센터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남극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오는 심각성과 남극기지에서 하는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남극에 우리나라 기지가 2개 소나 위치하며 다른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에 자랑스러움을 느끼었다.

다음날에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체리와 포도가 유명한 크롬웰 지역으로 이동하여,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체리를 수출했다는 농가를 방문하였다. 본래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가볍게 농사일을 해볼까 와서 시작한 체리 재배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재배면적이 넓어지면서 지금은 도시에 있는 아들과 딸을 불러들여 가족이 경영하는 농가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에 이상저온으로 체리의 작황이 좋지 않았고, 올해도 체리의 꽃망울이 늦게 열리며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북반구의 우리나라에서도 작년3~4월에 이상저온으로 과수 농가의 냉해피해가 심각했었는데 남반구의 먼나라 뉴질랜드에도 이상저온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고 하니,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공식방문은 없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레저 도시인 퀸즈타운을 보니 와카티푸 호수, 설산과 함께

경치가 장관을 이루었고, 휴일이고 햇빛이 좋은 날씨가 그런지 가족단위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뉴질랜드 대표 휴양도시 다웠다. 퀸즈타운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좋은 땅에 퀸즈타운 가든이 있었는데 이곳은 오래 전 퀸즈타운 시장으로도 역임하셨던 분이 시민을 위해 기부하였고, 기부조건에 정원을 조성하고, 뉴질랜드 국민 이외에 전세계 누구도 이곳을 무료로 입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자연유산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분의 취지에 감명이 들었다.

일정이 반 이상이 지난정도에서 우리는 뉴질랜드의 최고 상업도시인 북섬의 오클랜드로 이동하였다. 과거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수도였지만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북쪽에 치우쳐 있어서 현재는 뉴질랜드의 중간지역인 웰링턴이 수도가 되었다고 한다. 뉴질랜드 인구가 대략 470만명정도인데 남섬에는 약100만명만 거주하고, 대부분 북섬에 살면서 뉴질랜드도 국토의 균형발전에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섬에서의 첫 방문지는 뉴질랜드 농업의 핵심지역인 와이카토 지역의 농민조합을 방문하였다. 와이카토 농민조합의 존 부대표가 직접 나와서 뉴질랜드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뉴질랜드도 과거에는 농업보조금이 있었지만 1985년 농업보조금에 대한 비농업인의 반대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뉴질랜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뉴질랜드의 농·축산물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오는데 농민들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업도 농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집중되어야지 단순히 눈앞에 놓인 현안문제만 해결하는 데에 집중되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기적 발전은 어두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은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농산물인 키위, 그 키위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제스프리 본사에 방문하였다. 단일 농작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제스프리를 제외하면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뉴질랜드 키위의 판매실적이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3년 1,205백만 뉴질랜드 달러에 비하여 2018년에는 2,632뉴질랜드 달러로 2배가 넘는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해외에서의 수요량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뉴질랜드 국내에서만 생산이 아닌 뉴질랜드와 위도가 비슷하고 생산이 가능한 기후지역 중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해남 등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재배량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충남으로의 확대 가능여부도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시드니의 플래밍턴 마켓에서의 농산물 유통현장, 뉴질랜드의 대표적 수목원인 레드우드 수목원 등 공식방문지는 아니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임위 소관 지역을 둘러보면 충남도정에 반영할 만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연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모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주신 상임위 의원님들과 연수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연수안내에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집행부 직원에게 사고없이 연수를 무사히 마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와서...

지방환경사무관 빈준수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환경국을 대표하여 호주, 뉴질랜드(남,북섬) 2개국 8박10일간의 연수를 다녀온 후 방문지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몇 군데를 중심으로 소감을 적어봅니다.

인천공항에서 첫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까지 열 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피곤하였지만 예전부터 꼭 한 번은 방문해 봤으면 하는 국가라서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일정 둘째날 새벽 시드니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로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 산하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하여 호주의 스타트업에 대하여 견학을 하였다.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SSH)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역 창업자와 여러 산업분야를 연결해 주는 역할
- 민간 코워킹스페이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정부기관이 한곳에 있어 협업과 멘토링, 스타트업 행사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된 곳으로 400여개가 입주
- SSH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제공 역할하고 있는 곳으로 정부지원 없이 입주 기업들이 자신들의 4차 산업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호주의 스타트업의 IT분야는 우리나라에 뒤지지만 성공을 위해 쫓아가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맞기며 개별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보다는 자유로이 기업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60km 떨어진 곳에서 산자락이 시작되며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유칼립투스의 잎에서 증발된 방향물질이 산 위로 퍼져 멀리서 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니 신기한 생각까지 들었다. 우리나라 면적 1/10에 해당하는 10,326km²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00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인 것이다.

안개로 인하여 계곡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홍보물을 보니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협곡으로 들어가 탐방로를 따라 가다보니 1890년경의 목탄 탄광의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영국의 죄수들 원주민들이 목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파 놓은 터널과 장비들의 전시물을 보고 얼마나 힘든 곳에서 일을 했을 그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셋째날에는 와라감바 댐을 방문하였다.

와라감바 댐을 가는 길에 농산물시장에 들러 시장의 도매와 소매의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주에서는 중간 도매인이 없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매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생산자가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산물시장의 견학을 마치고 시드니 서쪽 약 65킬로미터에 위치한 네피안강 상류의 협곡에 위치한 우수한 상수원으로 최대 저수량은 약 20억톤에 이른다. 호주 국내 물 공급 댐 중 하나이다.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시드니에 물 공급을 이 댐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댐들이 열 개 이상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어 가뭄에도 견딜 수 있으며 가뭄을 대비하여 시드니 시내 주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공은 해 놓았으나 현재까지 가동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 특히 댐과 연결한 수도관을 시내 대부분까지 밖으로 노출하여 노후관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 맑은 물 공급에 유리하며 원래 호주는 물 부족국가로 다양한 물 공급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농장마다 개인이 소형 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사막지역

에서는 우수를 받아 여과한 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 상가 각 건물에 화장실 물은 재사용한 물을 사용하고 소변기 및 대변기에 물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어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제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날 아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을 하였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남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30만명으로 뉴질랜드 제3의 도시로 남섬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세계의 남극기지의 전초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여 공항 주변에 위치한 국제남극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남극기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남극빙하가 세계 민물의 92%를 차지하고 남극이 녹으면 70M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남극은 지구온난화가 진행중이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5일째 날에는 체리 농장인 Mrs Jones's Orchard 과수 재배 단지를 방문하여 농장주인 Jones 부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체리를 수출한 농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700에이커(약86만평)의 농지에 아들과 딸과 함께 경업을 하고 수확철에는 하루 15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한다 하였다.
체리의 년 생산량은 800~900톤으로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농의 생산자였다.



6일째 날에는 뉴질랜드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Z(Hamilton))을 방문하여 부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부회장 또한 60년 동안 옥수수 농사를 짓고 은퇴하여 협동조합의 부회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최고의 독립된 농업 협동 단체로 전체농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발전되었고 뉴질랜드 대규모 농가 90%(2,800농가) 정도가 가입된 단체로 정책제안이나 농업인의 권익 반영을 위한 농정활동을 펼치고 지속적인 농업 경제발전을 장려하고 뉴질랜드 농부들의 권익보호와 농장 산업을 총괄하는 단체로 농촌의 경제발전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였다,

처음 1899년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현재는 축산업(양)까지 포함시킨 대규모 단체로 조합운영은 조합원들의 펀드를 받아 운영되고 전국 24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년 12억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 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8일째에는 Zespri(제스프리) 키위생산 협동조합을 방문하였다.

97년 수십개의 영세농가를 이루고 있던 농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생산 농가가 주인이 되어 대형 유통회사의 수입 농산물에 대항하며 제스프리 조합회사로 만들어 지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키위의 판매가격은 물론 운송비와 마케팅비 등 모든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농민들이 직접 회사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1인1표 원칙으로 제스프리 이사회의 이사는 농민들이 선임하여 운영 세계 최대 키위 협동조합으로서 연간매출 14억5천만NZ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조합원은 2,700명의 규모이다.

제스프리 협동조합의 특징은 농장을 소유하지 않은 순수한 조합으로 연구등 활동을 통해 골드키위를 만들어 낸 조합이며 세계 55개국에

수출하는 우수 조합으로 발돋움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4개 국에 직접 농장을 위탁 운영하는 등 세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우수한 협동조합인 것이다.



9일째에는 오클랜드시 외곽에 있는 Day Breakcare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주간보호요양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병원 의사의 진단으로 추천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의 운영 시간은 아침 10:00~15:30까지로 보드게임, 인지놀이, 영화감상, 책읽기 등을 하며 일주일에 2회정도 주변의 재능기부자들이 찾아와 공연등을 하고 있으며 12명의 직원이 30~45명 정도의 노약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외에 뉴질랜드 남섬 남쪽에 위치한 밀포드사운드에 있는 피요르드 국립공원을 방문하였다.

퀸즈타운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밀포드사운드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는 국립공원으로써 손색이 없었다.

밀포드사운드를 가기 위해서는 좁은 협곡을 지나 남섬의 유일한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협소하여 터널 양쪽에 신호등을 설치 한쪽 방향에서만 통과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터널을 확장하라는 여론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며 오래된 터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밀포드사운드에서 유람선을 타고 피요르드국립공원을 탐방하였는데

경이롭고 웅장한 자연환경에 압도되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신바드협곡, 마이더피크, 페어리폭포, 물개바위, 스틸링폭포, 사자산, 헤리스만, 보엔폭포 등을 보면서 자연환경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보엔폭포에서는 수력발전을 설치하여 밀포드사운드의 모든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특이점은 밀포드사운드는 세계에서 강우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비가 오는 날이 평균 182일로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이며 연 6,000mm 이상으로 열대우림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주변의 공원, 뉴질랜드 남섬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컨테베리대평원, 푸크키 호수, 데카포호수, 목자의 교회,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마운틴쿡산, 퀸즈타운 시내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2번째 큰 호숫가의 공원

북섬의 로투루아의 폴리네시아 온천, 아그로돔 농장의 양몰이 체험, 마오리 원주민의 민속공연, 마오리족의 민속촌, 간헐천, 레드우드 산림수목원, 오클랜드시의 미션베이등 선진 관광지 뿐만아니라 역사는 짧으나 자연환경과 도시와의 조화로운 경관을 보며 천혜의 자원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역사는 짧으나 자연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국가라는 것이며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피요르드 국립공원(거울호수)



밀포드사운드 가는길



밀포드 사운드



레드랜드 수목원



레드랜드 수목원



퀸즈타운 호수

우리도 단지 경제적 발전위주의 정책과 농축업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연수기회를 주신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열흘간 함께한 동료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연수후기를 마칩니다.